

김대중 도교육감 “글로벌 전남교육 자신있게 실현”

3월 정책협의회서 ‘K-에듀’ 선도할 정책 방안 논의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역점과제 추진 방안 협의도

전남도교육청이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생의 가치로 글로벌 전남교육, 자신있게 실현합니다’를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및 교육협력관 등 60여명이 참석해 전남교육의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K-에듀 시대를 선도할 2025 전남교육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 1부에서는 △전남 수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2030교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2025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별 역점과제를 공유하는 분임 토의를 가진 후,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체 협의가 이어졌다.

직속기관들은 ‘공생의 가치’와 ‘글로벌 교육’을 반영한 역점사업들을 제안했으며,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현안과 특색을 반영한 전남교육 역점과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경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박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K-에듀를 선도할 전남교육 실현에 힘을 실어줬다.

김경희 교육위원장은 “2025년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 논의가 우리 학생들을 전남의 인재로 성장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전남도의회는 전남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전남교육 정책협의회에서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전남교육을 현장에서 자신 있게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중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장성 출신 김승일씨 회갑 맞아 100만원 고향사랑 실천

장성군이 최근 장성을 출신 김승일씨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 소재 사업체 지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승일씨는 장성을 성신리에서 9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올해 60세 회갑을 맞이하며 고향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을 실천하게 됐다.

김승일씨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장성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회갑을 맞아 장성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한중 군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장성의 성장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성군은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 개최와 ‘장성 방문의 해’ 운영에 맞춰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건강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뇌파·맥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국가 건강검진 안내도 병행했다.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건강검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건교육, 성금 기탁,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희 기자 goback@o.kr

전남장애인체육회-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맞손’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건강증진 등 기대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소속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완도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수철 완도군수와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산업 홍보와 도장애인체육회 및 18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다. 또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워크숍, 교육, 회의 등의 장소 제공도 포함된다.

협약을 통해 도장애인체육회 및 18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들은 완도해양치유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코스



2025. 3. 20.(목) 11:00 / 완도군청 군수실

부터 2박 3일 코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장애인체육 직원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대기오염 원격감시체계 운영 안정성 확보 ‘앞장’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남부권관제센터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남부권관제센터가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굴뚝 TMS 긴급지원반(F.T.A.T, FastTech Assist Team)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측정기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굴뚝원격감시체계는 1998년 남부권관제센터가 최초로 구축한 이후 2002년 전국에 관제센터가 완비되면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남부권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굴뚝TMS 배출구 개수는 633개로, 2021년 대비 7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측정기기 운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장 담당자와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남부권관제센터가 운영하는 긴급지원반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상자료 발생 등으로 TMS 측정값 정상 여부의 사업장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이 관할 행정기관과 공단에 TMS 이상자료 발생을 통지하고 관제센터에 긴급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남부권관제센터는 기술지원 대상 여부 판단 및 TMS 이상자료에 대한 현장 재연성 시험 등의 신속한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FTAT 운영으로 불명확한 이상자료 발생에 따른 사업장과 행정기관 간의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자체개선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영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사진)은 “FTAT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굴뚝 TMS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완도군, 민·관·공 협력 잘피 이식

장좌리 해역에 15만주...블루카본 중요성 공유

완도군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환경재단, 장좌리 주민들과 함께 블루카본 이식체를 만들고 장좌리 해역에 이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잘피 이식은 한전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으며, 작업은 3월 초부터 이뤄졌으며 총 15만주를 장좌리 해역으로 옮겨 심었다.

이식에 참여한 이들은 점도과 한지를 이용해 잘피 이식체를 만들며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잘피는 해양 보호 생물이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인증한 대표 블루카본으로 육지의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군은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해조류, 잘피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산면 국화리에 이식한 잘피는 생장률 61.8%를 보이며 완도 바다가 잘피 생육에 최적임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잘피 이식 후 생존율은 5~10%인데, 청산면 국화리에 이식한 잘피는 생존율 61.8%를 보이며 완도 바다가 잘피 생육에 최적임이 밝혀졌다.



완도군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환경재단, 장좌리 주민들과 함께 블루카본 이식체를 만들고 장좌리 해역에 이식했다.

군 관계자는 “잘피 이식 등 바다 숲 조성에 기여하고 완도의 청정 바다를 보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집센터. 문의 062-374-2818.
▲지역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월·금요일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회원.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2월 22일)

48년생 내 것 주고 뺏 맞는다
60년생 도움 요청에 상대의 회답이 없다
72년생 공연한 일로 크게 다룰 수 있다
84년생 문서를 취득할 운
96년생 구상 좋으니 계획 세우기 좋은 날
51년생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챙겨라
63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나 반만 남는다
75년생 자녀 생각 없이도 빨리 바꾸라
87년생 금주욕염이 상할 수도 있다
99년생 데이트 예상 틀려진다
54년생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66년생 직업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음
78년생 반복 될 뿐 별다른 진전은 없다
90년생 모든 일에 만족스런 결과가 도출
57년생 예치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69년생 영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
81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히 청산하라
93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
49년생 마음부터 우선 잡아라
61년생 몸과 마음만 분주하고 결과 없는 날
73년생 움직일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85년생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
97년생 다른 사람의 생각에 손재수 있다
52년생 원칙대로 해아나 후회할 게 없을 것
64년생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에 참가하라
76년생 앞서가지 말라 명맥만 유지한다
88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
55년생 생각하다가가는 시기를 놓친다
67년생 사교성이 많으니 즐거움이 있는 날
79년생 어려웠던 일들이 풀려간다
91년생 천성연분인 인연 맺는 날
58년생 사업에 깊이 개입하면 어려워진다
70년생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다
82년생 지인의 꼬임을 조심하라
94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일을 결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62년생 둘 다 내 것이 아니니 빨리 건네주라
74년생 실패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옳이
86년생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말 것
98년생 거래처는 귀하다 한 수 위
53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장 찍으라
65년생 될 것이니 걱정 말고 일을 추진하라
77년생 활기차고 평온한 날
89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뉴시라도 하라
56년생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68년생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도량이다
80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
92년생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라
59년생 수입이 늘거나 횡재수가 보인다
71년생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83년생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95년생 주인공이 될 것이다